

대형 프로젝트 공모 '錢의 전쟁'

정부 매칭펀드 적용...광주·전남 등 재정열악 지자체 불이익

유치 활동 예산·행정력만 낭비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에 지자체의 대응자금(매칭펀드)을 경쟁시키면서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 유치가 곤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살림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참여정부 들어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모사업이 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부 부담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지방의 대응자금은 늘고 있다.

특히 공모사업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지자체 간 경쟁시스템이 바뀌면서 지방비가 사업비의 절반을 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R&D(연구·개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8

대 2, 인프라 사업은 6대 4 정도다. 이 때문에 '돈 싸움'에서 밀린 광주·전남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들은 수천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거의 따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모 사업 유치를 위해 시·도는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은 물론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통해 수개월 동안 유치활동을 벌임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손실도 심각하다.

최근 인천으로 결정된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은 돈 많은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따낸 대표적 사례다.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국비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올 초 4개 도시가 경합을 벌

이면서 '지방비 20% 이상'이라는 조건이 내걸렸다. 결국 지방비 부담액을 1천700억원(총사업비의 약 43%)으로 가장 많이 썬 인천이 선정됐다. 대전과 대구는 1천300억원(38%)을, 광주는 690억원(25%)으로 명함을 내밀기도 부족했다.

반면 광주는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1억원의 용역비(인천 3억원)를 지출함은 물론 15명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25명)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3개월 가량 운용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11개 시·도가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돌입한 로봠펀드 조성사업의 경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불리한 상황이다. 경북은 사업비를 1조1천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4천300억원 규모로 기획하는 등 재정능력에 따라 규모 차가 커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올 들어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가 뛰어들 것은 모두 7건(자기부상 제외)이었으며 이중 6건이 선정됐다. 대형 프로젝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은 유치가 한결 쉬운 셈이다.

또 전남도도 로봠펀드 외에 국립 노화연구소(사업비 1천200억원), 보완 대체의학 허브조성사업(1천억원) 등의 공모에 뛰어들기 위해 용역비를 편성,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매칭펀드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 노력 정도와 연계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대응자금'이라고도 한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자치단체의 출연액에 따라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을이 온다

연일 폭염이 계속 되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다. 툭툭하게 가을이 오고 개를 떨군 수수밭에 잠자리들이 날고, 잠자리를 쫓는 아이들 위로 피어난 초가를 하늘이 얼굴을 살짝 내밀었다. /무인 일로 = 워킹라이터 jrwi@kwangju.co.kr

민주신당 "컷오프로 5명 압축"

경선일정 확정...내달 29일 광주서 격돌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음달 3~5일 치러지는 컷오프(예비경선)에서 1차적으로 후보군을 5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명의 등록후보 가운데 4명은 컷오프에서 탈락된다. <관련기사 4면>

또한 9월15일 울산·제주에서 시작, 10월14일 서울에서 마무리되는 본경선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경선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29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전체 경선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합 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이하 국경위)는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다음달 3~5일 치러지는 컷오프에서 1차적으로 후보군을 5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대통합 민주신당의 예비경선 토론회는 인터넷 2회, TV 1회 등 3차례 열린다. 첫 인터넷 토론회는 오는 27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며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다.

국경위는 또한 본 경선을 다음달 15일 울산·제주에서 시작, 16일 강원·충북, 29일 광주·전남, 30일 부산·경남, 10월6일 대전·충남·전북, 7일 인천·경기, 13일 대구·경북, 14일 서울 등의 순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22~23일) 이후 치러지는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초반 판세는 물론 전체적인 경선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컷-오프 기호 추천에서는 1번 손화

■민주신당 지역별 순회경선

회차	투표 일자	선거구단 마감	구역
1	9.15(토)	9.1(토)	울산·제주
2	9.16(일)	9.1(토)	강원·충북
3	9.29(토)	9.10(월)	광주·전남
4	9.30(일)	9.10(월)	부산·경남
5	10.6(토)	9.17(월)	대전·충남·전북
6	10.7(일)	9.18(화)	인천·경기
7	10.13(토)	9.29(화)	대구·경북
8	10.14(일)	9.30(수)	서울

※개표 결과는 회차별로 발표

규, 2번 신기남, 3번 한명숙, 4번 이혜찬, 5번 천정배, 6번 정동영, 7번 추미애, 8번 유시민, 9번 김두관 후보로 확정됐다. /일동특기자 tuim@

신문협회 "취재봉쇄 조치 철회" 성명

한국신문협회는 국정홍보처의 브리핑 룸 통제 및 취재 제한 조치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유린하는 취재봉쇄 조치를 철회하고 부처별 브리핑 룸에 대한 못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 전문 2면>

협회는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에서 채택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유린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의 일치된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취재지원 선진화'라는 이름의 취재봉쇄 조치를 강행해 언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또 "유신체제나 5공 때도 없었던 이같은 조치를 반민주적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참여

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이를 감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처별 브리핑 룸을 폐쇄하고 국정홍보처장이 통합브리핑 룸 출입증을 발급, 기자들의 발을 묶고 공무원 대면 취재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일련의 취재봉쇄는 국정을 철저히 장막 뒤에 감추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아프간 파병사태 등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들로 인해 기자들이 주야로 취재 전선을 지켜야 하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이 언론봉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인질 수일내 전원석방"

외신 잇단 보도...정부 "합의상태 아니다"

27일로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 피랍 40일째를 맞은 가운데 남은 한국인 19명을 석방하기 위한 한국측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교섭이 '상당히 깊은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 결과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양측의 교섭은 '19명 전원석방'을 전제로 진행중이며 탈레반측도 '조속한 해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외신에서 전한 것처럼 압축이 이미 '전원석방에 합의한 상태'는 아니며 탈레반측이 인질 석방을 위해 몸값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온 상황도 아니라고 정부 소식통이 26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은 탈레반측이 (돈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재 모든 곳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 다 움직이고 있으니 그 결과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아시히 신문 인터넷판은 26일 탈레반측이 인질석방 조건으로 1인당 10만달러씩의 몸값을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AIP가 한국측과 탈레반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압둘라 사우디 국왕을 예방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진서를 전달했다. /정후식기자 who@연습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ILDONG 위동제약

항산화제 보강

여름엔 특히 **아로나민 씨플러스**
피로는 풀고 피부는 건강하게!

여름엔 두더위와 강한 자외선으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피부 상층부에 활성산소는 피로와 피부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 피부에 흡수되는 비타민 E군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E-도 클레는 미연동 항산화제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피로는 풀고, 피부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아로나민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피부가 좋아야
일하러, 살려야...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E 보강 / 항산화 / 세라마이드 / 피로 / 피부개선 / 피부노화 방지 / 피부건강

신도·충남·전남 / 24시간 콜센터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전남·전북·경북·충남·충북·충청·경남·제주
문의문의 062-220-5000 / www.ildong.co.kr